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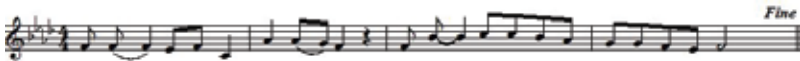
(루카 14,27)

에기노 바이너트 작

[제1독서] 지혜서 9,13-18

[화답송] 시편 90(89),3-4.5-6.12-13.14와 17
(◎ 1)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나이다. ◎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나이다. 아침에 돋어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 저희 날수를 해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제2독서] 필레몬서 9ㄴ-10.12-17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당신 얼굴이 종에게 빛나게 하시고,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복음] 루카 14,25-33

[성가 안내]

- 입당성가: [19] 주를 따르리
- 봉헌성가: [210] 나의 생명 드리니 [513] 면병과 포도주
- 성체성가: [167] 생명이신 천상 양식 [156] 한 말씀만 하소서
- 파견성가: [283] 순교자 찬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때에 ²⁵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²⁶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²⁷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²⁸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²⁹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³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 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³¹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가려면, 이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만 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³²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 협정을 청할 것이다.

³³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Great crowds were traveling with Jesus, and he turned and addressed them, “If anyone comes to me without hating his father and mother, wife and children, brothers and sisters, and even his own life, he cannot be my disciple. Whoever does not carry his own cross and come after me cannot be my disciple. Which of you wishing to construct a tower does not first sit down and calculate the cost to see if there is enough for its completion? Otherwise, after laying the foundation and finding himself unable to finish the work the onlookers should laugh at him and say, ‘This one began to build but did not have the resources to finish.’ Or what king marching into battle would not first sit down and decide whether with ten thousand troops he can successfully oppose another king advancing upon him with twenty thousand troops? But if not, while he is still far away, he will send a delegation to ask for peace terms. In the same way, anyone of you who does not renounce all his possessions cannot be my disciple.”

묵상

바로 사도의 늙은 모습과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오늘 제1독서의 말씀이 더욱 실감납니다. “죽어야 할 인간의 생각은 보잘것없고”, “썩어 없어질 육신이 영혼을 무겁게” 하는 인간의 면모가 생각납니다. 위대한 사도이지만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려 애쓰는 한 인간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됨은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분처럼 자신을 낮추고, 포기하며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지닌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두려워 그것을 회피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몹시도 힘든 길이며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도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집과 욕망을 하나씩 버리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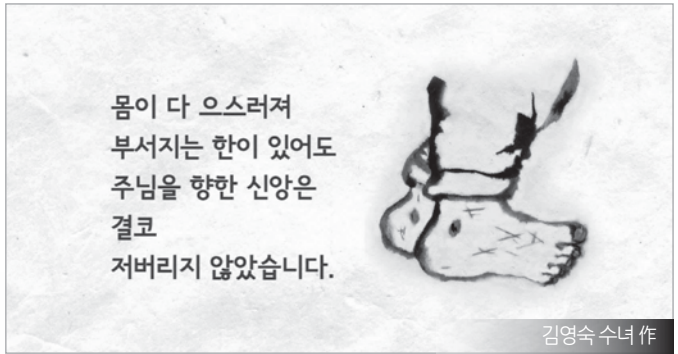
십자가의 길 여정 안에서 우리는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으며 살게 됩니다. 이러한 연약함은 우리가 날마다 지고 갈 십자가의 일부가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주님과 분리될 동기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은총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권고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걷는 십자가의 작은 희생과 고통들을 구원의 열매로 바꾸어 주십니다.

일상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변모됩니다. 우리가 가지는 작은 용기를 통해 교회는 건설됩니다. 우리가 지니는 전적인 신뢰와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몸은 자라납니다.

9월 순교자 성월

한국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기도

- 이 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 저희는 현세에서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위대하신 순교자들이여, 천상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 주소서.
- 지금도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사오니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교회를 붙들어 보호하시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지역에게까지 널리 퍼시도록 빌어 주소서.
- 용감하신 순교자들이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 당신들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시다가 목숨까지 바치셨사오니
- 전능하신 하느님께 빌어 주시어 교회를 이 땅에서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를 많이 나게 하시고
- 신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냉담자들은 다시 열심해지며 갈린 형제들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비신자들은 참신앙으로 하느님을 알아 천지의 창조주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오게 하소서.
-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빌어 주시어 저희와 친척과 은인들에게 필요한 은총을 얻어 주소서.
-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어 증언하며 비록 피는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입어 선종하게 하소서.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김영숙 수녀 작

공동체 창설 30주년 기념 행사 안내

공동체 창설 30주년 - 본당승격 20주년

“성숙한 신앙인, 이웃과 함께 하나된 공동체”

1 불우이웃돕기 5k걷기/뛰기 대회

본당 공동체 창설 30주년 기념행사로 실시되는 불우이웃돕기 5k 걷기/뛰기 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시: 9월 17일(토) 오전 7:30 - 오전 10시
- 신청: 9월 11일까지, 8시, 10시, 11:40 미사 후 (친교실)
- 신청비: 1인 \$15 / 2인 \$25 / 한 가족당 \$40 (아울러 도네이션도 받습니다.)
- 문의: 김재호 라우렌시오 (571)345-5442

2 음악의 밤

- 일시: 9월 24일(토) 본당 오후 8시 - 9:45
- 공연 참가자: 연합성인성가대, 청소년 오케스트라 마니안젤리 핸드벨 연주단, 쉐마 청년 성가대

3 대친교

- 일시: 9월 25일(일) 오전 8시, 10시, 11:40 미사 후(친교실)
- 대상: 전 교우
- 메뉴: 잔치국수, 떡, 과일

4 성경 퀴즈 대회

- 일시: 9월 25일(일) 오후 2시 - 5시 (친교실)
- 대상: 전 교우
- 접수 기간: 9월 4일 / 9월 25일 8시, 10시, 11:40 미사 후, 오후 5시 미사 후(사무실)
- 문의: 서경원 마르티노 (571) 236-7071



엠이 (M.E.) 월례회

ME 봉사자 여섯 부부는 지난 8월 27일(일) 김영술(아놀드) 형제 집에서 모여 8월 모임을 가졌다. 에페소서 말씀(5,28-33) 을 묵상하고 나눔 시간을 가진 후 앞으로 있을 행사에 대해 논의했다. 오는 10월 30일(일) 오후 2시부터 센터빌 볼링장에서 있게 될 '동중부 ME 친선 볼링대회' 준비 사항을 논의했으며, 'ME 주말' 피정 후 팀 회합에 참여하지 못하는 ME 부부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요한회, 버크 노인아파트 방문

본당 50대 신자들의 모임인 요한회 회원 9명은 지난 8월 29일(월)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버크 노인 아파트의 월요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 병중에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고, 세상을 떠난 교우들이 연옥에서의 보속을 면하고 빨리 하느님 곁으로 갈 수 있기를 지향하며 묵주기도를 함께 바쳤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기도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준비해 간 음식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하상회 정기 모임

하상회는 지난 8월 21일(일) 친교실에서 8월 정기 모임을 가졌다. 성원경(대건 안드레아) 보좌 신부의 강복과 함께 이 스텔라, 정 아가타 수녀의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가 있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참석하지 못한 많은 회원들을 위해 병자의 기도를 드리고 신입 회원 소개 시간을 가졌다.

또한 '삶의 지혜 나누기' 시간에는 강승기(요한) 형제가 구강 청정제의 다양한 효능에 대해 설명했다. 9월의 흥겨운 추석 잔치 계획을 공지했으며 "매월 생일을 맞은 회원들을 축하하면 좋겠다"는 양방우(요한) 형제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달부터 실행하기로 했다.



안나회 정기 모임

안나회는 지난 8월 21일(일) 친교실에서 회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정기 모임을 가졌다. 정인준(파트리치오) 신부의 영육 간 건강을 위한 묵주기도 3단 봉헌에 이어 회계 보고가 있었다. 주임 신부를 대신한 성원경(대건 안드레아) 보좌 신부의 격려와 강복이 있었으며 8월에 생일을 맞이한 10명의 회원들을 축하했다. 또한 새로 초청되어 온 이 스텔라, 정 아가타 수녀의 자기소개와 인사가 있었으며 점심 식사와 함께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2016년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일일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김만식 재권 요셉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이 주최한 2016년 뉴저지 파티마 본부 일일 성지순례가 지난 8월 13일(토)에 열렸다. 본당 교우와 파티마 회원 20명의 순례단은 토요일 이른 아침 5시 45분에 본당 셔틀버스 주차장을 출발하여 삼중 기도와 아침 기도 그리고 묵주기도(환희, 빛의 신비)를 하며 오전 11시에 순례 성지인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본부가 위치한 뉴저지 주의 워싱턴(Washington, New Jersey)에 도착하였다.

도착 후 나무 그늘에 모여 앉아 점심으로 준비해 온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고 본 행사가 열리는 야외 성전으로 올라갔다. 성전 주위에는 이미 인근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등에서 온 많은 신자들로 붐볐으며 성전 주위에 마련된 야외 고백소에는 많은 이들이 성사를 보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오후 12시가 되자 파티마 성모님을 모시고 행렬하며 묵주기도를 드렸다. 특별 강사로 오신 머리오 신부님은 세속적인 가치가 범람하고 반기독교적 현상이 만연해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파티마의 회원들은 '성모님의 원의대로 죄인들의 회개와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와 희생, 그리고 보속을 바치는 매일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특히 자비의 특별 희년을 맞아 우리가 먼저 '주위의 이웃들에게 자비를 더 베풀자'고 하셨다. 오후 1시가 되어 뉴저지 스크랜튼 교구의 요셉 밤베라 주교님이 미사를 집전해 주셨고 강론을 통해 폴란드에서 있었던 '세계 청년대회'에 교구 청년들과 함께 했던 경험을 나누어주셨다.



주교님은 이 대회가 전 세계에서 온 200백만 명이 넘는 젊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 신앙을 나누며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은총을 나누는, 열정과 젊음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다"고 하셨다. 또한, 이 자비의 해에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가르침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자비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도움을 주었듯이 우리도 이웃에게 자비를 전하는 사도'가 되어야 함을 일깨운다고 강조하셨다. 미사 후 끝 순서로 다 함께 '파티마 안녕' 노래를 부르며 성모님께 손수건을 흔들며 작별을 고하는 가슴 뭉클한 감동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다 함께 포르투갈 파티마의 경당을 본떠 만든 카펠리아에 들러 간단한 기도와 초 봉헌을 하고 십자가의 길을 바치기 위해 14처가 있는 오솔길로 옮겨 무더위를 견뎌내며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바쳤다.

준비한 저녁을 맛있게 먹고 성지를 출발하여 버지니아로 향해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묵주기도 (고통, 영광의 신비)를 바치고 저녁기도와 '하느님 자비의 기도' 도 함께 바쳤다. 또한 버스 안에서 한마음으로 성가도 배우고 부르며 성모님을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과 은총 등을 나누었다. 이번 순례를 통해 성모 신심이 더욱 깊어졌으며 성모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느낄 수 있었던 행복한 일일 성지순례였다.



14처를 바치는 순례단

청년 레지오, 홍보 및 친교 모임 가져

본당의 청년 레지오는 지난 8월 20일(토) 오후에 그레이트 폴스에 위치한 리버랜드 파크에서 친목과 홍보를 위한 모임을 가졌다.

청년 레지오를 널리 알리고 보다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이날 모임에는 4개의 청년 레지오 프레스비디움인 '죄인들의 의탁', '정의의 거울', '승리의 어머니', 그리고 '영원한 도움의 성모' 팀이 참여하여 레지오의 의미와 목적을 알리고 각 프레스비디움의 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단장들과 단원들을 포함한 29명의 청년들은 바비큐를 하며 카약과 공놀이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청년 레지오 단체들의 회합은 주일 3시경 친교실에서 있으며, 본당의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Saint Story

St. Gregory *the Great*

Feast day: Sep 3

St. Gregory was born in Rome, Italy. His father was a politician and his mother is a saint, St. Celia. Gregory studied philosophy and when he was still quite young, became the governor of Rome.

When his father died, Gregory made his large house into a monastery. For many years he lived as

a good and holy monk (priest). Then Pope Pelagius made him one of the seven ministers of the Church in Rome. When the Pope died, Gregory was chosen to take his place.

He was so holy and wise; everyone knew he would be a good Pope. But Gregory was so humble that he did not want that honor at all and disguised himself and hid in a cave.

The people soon found him and made him pope anyway. For fourteen years he ruled the Church. Even though he was always sick, Gregory was one of the greatest popes the Church has ever had. He wrote many books and was a wonderful preacher. He cared for people all over the world. In fact, he considered himself the servant of all. He was the first pope to use the title "servant of the servants of God." All the popes since have used this title.

St. Gregory took special, loving care of poor people and strangers. Every day he fed them a good dinner. He was also very sensitive and understanding when people were treated badly.

Once, when he was still a monk, he saw some blond English boys up for sale in the slave market of Rome. The saint felt a great desire to go to England to bring the love of Jesus to those pagans (who did not believe in God). When he became pope, one of the first things he did was to send some of his best monks to teach the English people and help bring them to Jesus.

This holy pope suffered a lot in the last few years of his life, yet he continued working for his beloved Church until the very end.

Quote from Pope St. Gregory the Great



"The more sincerely we love you, the more strongly we grieve over you because you entrust yourself to ignorant and foolish people."

Letter to Theodelinda,
Queen of the Lombards
September, AD 593

"The Proof of love is in the works. Where love exist, it works great things. But when it ceases to act, it ceases to exist."

"The sacred Scriptures grow with the one who reads them."

"Hope fixes our hearts so steadfastly upon the joys of Heaven that we are insensible to the miseries of this life."

"The only true riches are those that make us rich in virtue. Therefore, if you want to be rich, beloved, love true riches.

If you aspire to the heights of real honor, strive to reach the kingdom of Heaven.

If you value rank and renown, hasten to be enrolled in the heavenly court of the Angels."

September

Month of **Martyrs**

Andrew Kim Taegon, Paul Chong Hasang and Companions (September 20) are being honoured by the Month of Martyrs in South Korea.

In May 1984, 103 martyrs were canonized and this month the Catholic Church in South Korea is holding a "month of martyrs" with the support of Pope Francis. The first conversions in the traditionally Confucian country began in the late 19th century, around the time when the first Christian books written in Chinese were imported in 1777. By the time a Chinese priest arrived at the end of the century he found about 4,000 Catholics – none of whom had ever seen a priest.

The first Korean priest, Fr. Andrew Kim Taegon, was executed in 1846 aged only 25. Other martyrs included Paul Chong Hasang and his father



<103 Korean Martyrs>

Augustine, Peter Yu tae-chol, John Baptist Yi and Thomas Son Chason.

What especially irked traditional Koreans was that this new faith seemed to undermine class distinctions, encouraging the poor to mingle with their betters. By the time the persecutions had ended in 1866, there were only 20,000 Catholics left in the country, while the vast majority of martyrs were lay people.

Seventy-nine of the martyrs of 1839 were beatified in 1925, while another 24 were beatified in 1968. John Paul II canonised all 103 martyrs in Seoul in 1984. The Holy Father said that day: "The Korean Church is

unique because it was founded entirely by lay people. This fledgling Church, so young and yet so strong in faith, withstood wave after wave of fierce persecution. Even today their undying spirit sustains the Christians in the Church of silence in the north of this tragically divided land." Korea is now thought to have the fourth largest number of saints on earth.

Announcements

1. First day of Sunday School (Ceremony & Parents Orientation)

- When: 9/11 (Sunday, 10 am)
- Where: Gym

2. First day of Confirmation Class (2nd Semester)

- When: 9/14 (Wed, 7:45 pm)

3. Confirmation Class Parents Meeting

- When: 9/14 (Wed, 8pm)

1 구역임원 교육

• 일시 : 9월 4일(일) 오전 11:30 (B-1,2)

2 성모회 임원회의

• 일시 : 9월 4일(일) 오후 1시 (B-1)

3 공동체 기도회 모임

• 일시 : 9월 9일(토)은 공동체 기도회의 날입니다.
• 오후 8시부터 각 공동체별로 실시하오니 해당 공동체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4 한가위 조상들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

• 일시 : 9월 15일(목) 오후 8시
• 조상들을 위한 합동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 미사 신청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5 하상성인학교 가을학기 개강식

• 일시 : 9월 6일(화) 오전 9:20 (하상관 #110)
• 수강생과 강사께서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6 2016년 하상성인학교 가을학기 등록안내

• 교육 기간 : 2016년 9월 6일 - 2016년 12월 4일
• 등록 : 9월 4일(오전 8시, 10시 미사 후 오전 9시-12시), 친교실
• 등록금 : \$50 (점심 제공)
• 문의 : 김명희 (올리아나) (703) 217-2775

7 교육 세미나

• 일시 : 9월 11일(일) 오전 11:30 - 오후 1시
• 주제 : 주의력 결핍 증상(ADHD) 극복 방안과 부모의 역할
• 강사 : 황용주 베드로(LPC, PBSF)

8 단체장 회의

• 일시 : 9월 11일(일) 오전 11:30분 (B-3,4)

9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9월 11일(일) 오후 1시 (B-3,4)

10 복사단 모임

• 일시 : 9월 11일(일) 오후 12:40 (B-1,2)

11 토요일 사무실 봉사자 모집

• 매주 토요일(오전 9시- 오후 5시) 사무실 봉사를 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신자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최재필 총무 (703)589-6580

12 주일학교 PTO 전체회의

• 2016년 - 2017년도 주일학교 학부모 전체회의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9월 18일(11:40 -12:30) 하상관 지하실 # 4
• 문의 : 임은경 마리아 (703)870-1908

13 2016 - 2017년도 주일학교 등록

• 주일학교 새학기 등록을 받고 있으니 학부모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등록 : 9월 4일까지
• 등록비 : 한 자녀 \$80/ 두 자녀 \$150/ 세 자녀 \$200
• 신청 : 하상관 주일학교 교무실, 오전 10시 미사 전후
• 문의 : 윤정 보일 교감 (703) 371-3589

14 2016 - 2017년도 하상 한국학교 등록안내

• 입학 대상 : 유치부 - 12학년
• 학사 일정 : 2016년 9월 10일 - 2017년 5월 13일
• 등록접수 : 9월 4일까지, 친교실 (8시, 10시 미사 후)
• 우편 접수 : Hasang Korean School,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 학비 : 등록비 포함, 첫째 자녀: \$490, 둘째 자녀: \$450 셋째 자녀: \$400
• 문의 : 육옥영 교감 (703) 598-5540

15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주일학교에서는 교리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교우들은 성당 사무실이나 주일학교 교무실로 연락주십시오.
• 문의 : 윤정 보일 교감 (703) 371-3589
성당 사무실 (703) 968-3010

16 2016년 청소년사목 기금 마련 골프대회

• 일시 : 10월 2일(일) 오후 1시
• 장소 : South Riding Golf Club
• 참가비 : \$100 (중식, 석식 포함)
• 신청 : 9월 한달 동안 친교실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주관 : 청소년 사도회)

17 사무실 휴무

• 일시 : 9월 5일(월), Labor Day

2차 현금
루이지애나 홍수 피해자들을 위한 2차 현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본당에서 오랫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해 오신 유희일(안토니오) 형제님께서 선종하셨습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9월 4일(일)	연중 제23주일	구역임원교육(11:30, B-1,2), 성모회 임원회의(13:00, B-1), 청소년사도회의 (13:00)
5일(월)	연중 제23주간 월요일	아침 미사(6:00, 성당)
6일(화)	연중 제23주간 화요일	하상 성인학교 개강식(9:20, 하상관 #110), 레지오 마리아(20:00, 친교실), 성령기도회(20:00, 친교실), 예비자 교리(20:00)
7일(수)	연중 제23주간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9:30, 친교실)
8일(목)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	아침 미사(6:00, 성당)
9일(금)	성 베드로 클라베르사제 기념일	저녁미사(19:30, 성당), CLC (20:00)
10일(토)	연중 제23주간 토요일	아침 미사(7:00, 성당), 레지오 마리아(9:30, 친교실)
11일(일)	연중 제24주일	성 십자가 현양 축일 미사, 단체장 회의(11:30, B-3,4), 복사단 모임(12:40, B-1,2), 꼬미시움월례회의(13:00, B-3,4), 주일 학교 개학(10:00, 하상관)

하상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 9월 8일 (목) 오후 9시-11시**
- **가톨릭 소식** : 교황청, 세계, 한국의 주요 가톨릭 소식 종합
 - **생명 그리고 사랑** : 작은 생명들에게 세상을... 여의도 성모병원 가톨릭산모-신생아 집중치료 센터
 - **명불허전** : 평화방송 명강의 앵클 시리즈. 예수회 정제천 요한신부 "주님을 따르는 길"
 - **인터뷰, 아, 사람** : 호스피스 병동에서 노래하며 봉사하는 음악 치료사 김경희 마리아

 **www.masstimes.org**
MASS TIMES FOR TRAVEL

여름 휴가 중 가까운 성당 및 미사 시간 찾기

인터넷에서 아래 주소를 입력하면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시간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6년 8월 28일 (연중 제22주일)

주일헌금	\$ 8,268.00
교무금	\$ 7,620.00
교무금(신용카드)	\$ 3,410.00
특별헌금	\$ 100.00
2차 현금	\$ 0.00
합계	\$ 19,398.00

♥ 주일헌금 및 2차 현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투에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Thomas Byrne, 홍종범(시몬), 한중분(루시아), 정명금(테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민복(아네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이강영(테오도로), 김태명(시몬), 신순영,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 송영하(요한), 김영자(세레나), 이창덕(비오), 김영식(베드로)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윤백참(프란치스코), 임현석(아비도), 손범기(펠릭스),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장동건(스테파노), 장동호(다니엘), 주기환(필립), 최홍집(앤토니), 심용천(요한), 전성호(세례자 요한), 장동길(피터), 최용성(프란치스코), 고미헬(미카엘라), 이솔(루시아), 에스터 정(세레나), 정수지(요안나),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혼인공시

◆ **성승현 자 : 성영호 (스테파노)**
◆ **김승근 녀 : 김홍선**

- 일시 : 2016년 9월 17일 (토) 오후 4:30
- 장소 :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 이 두 사람이 혼인해서는 안될 어떤 사정을 아시는 분은 주임사제나 교구집권자에게 알려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Pohanka Acura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허진 변호사 Law Office Jason Huh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18-5404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이불, 옷,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 엘리사벳 703-508-774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Youngs Health Care Inc.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주택용자, 재용자 EverBank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안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연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엽)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스카이 학원 전 학년 전문 SAT, 영어, 수학 가을학기 등록 중, 조기등록 혜택 김영란 (아네스) 703-867-1144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케어피플 & 호스피스 간병사, 방문간호, 물리치료 이선애 (엘리사벳) (O) 571-297-4747 (C) 240-413-0365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운 (마르코) 센터빌, 챌릴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신디 리 부동산 텔리 전문 사업체 이루시아 703-338-0008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F teck connection, LLC POS(cash register), CCTV, Network, Bank Card Services 마르티노 손 540-429-1399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마태오 흥 종합보험 자동차, 집, 사업체, 은퇴연금 장기간호 / 생명 / 건강보험 703-969-8956 703-969-8954	Kitchen, Deck Sunroom 해성건축 김영수 (요셉) 571-477-5996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식,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찬들리 HYUNDAI 김경태(바오로) 571-314-3467	Golf Lesson 성인레슨 및 워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손 678-800-3451
Penta Olympic Fencing Club 펜싱 클럽 이영찬(베드로) 703-207-1059 Cell.703-801-3924	ASSA 종합보험 최 클라라 생명, 건강, 비즈니스 자동차, 주택 703-649-2110	5분 도정 즉석 도정미 판매(당일 도정) 현미, 5분도미, 백미 www.JCProvision2016.com 703-366-3286	임경옥 부동산 Gangnam Realty & Management Group, LLC 703-944-1337	김주현 회계사, 세법학 석사 Julie J. Kim CPA, MST 회계, 세무, 감사 jkim@juliekimcpa.com 703-462-9924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에스터'S 키친 케이터링 전문 www.estherkitchen.com 최은숙 (에스터) 571-215-3232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Landscape 정원 관리, 나무 자르기 하상욱(요한) 703-609-1011	민 자동차정비 703-869-9691

성사·교리·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작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8개월)
 · 주일 : 11시 40 분 (하상관)
 · 화요일 : 오후 8 시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 사도회장 이용현 (요셉)